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IT 공룡들 주가 급상승 ··· 성장 가속도 예상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 가 급상승하고 있다.

11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지난 1972년 출범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 로 1만선을 돌파했다.

최근 나스닥 지수 상승세는 소위 '마가(MAGA)'로 불리는 대형 IT 주들의 질주 덕분이다. 10일 뉴욕증 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2.6% 급

등해 주당 35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의 시총 1조 5,290억 달러에 달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 는 4% 가까이 치솟았으며, 아마존도 1.8% 올랐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0.7% 올랐다. 애플·MS·아마존·알파벳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도 9.0%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다.



▲ 미 IT 공룡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이들 IT 기업의 주가는 최근 코로 나19로 멈췄던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IT 기업들의 주가 가과열되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 지만 시장 상황은 IT 기업들에 우호 적이다. 우선 IT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IT 성장에 가속 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 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중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방준비제도가 3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석 달간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은 약 3조 달러에 달한다. 또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와 정크본드 매입에 나섰으며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등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미 연준 "2022년까지 제로 금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기금급리(FFR)를 현행 0.00~0.25%로 동결하고 현행 '제로(0)급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이틀간의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2022 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 기준금리 는 예상대로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으로 최소한 1년 반 동안은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지난 3 월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전격 인하하며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연준은 제로금리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행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견디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현행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다." 며 "우리는 금리 인상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며 2022년까지 제 로금리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타벅스, 픽업 전용 매장 추진



▲ 스타벅스가 픽업 전용 매장을 추진한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벅스가 기 존 매장 수를 줄이고 픽업 서비스를 확대해 실적 회복을 추진한다.

스타벅스는 3분기에 주당 약 55센트에서 70센트의 손실을, 미국 내 판매는 최대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4분기에는 이익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 기간 스타벅스를 방문한 고객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했으며, 평균 주문 건수도 많았다고 스타벅스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향후 18개월 동안 약 400개의 미주지역 점포를 영구 폐쇄하고, 이번 회계 연도에서 신규 점포 개설은 약 300개로 절 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지역의 신규 점 포는 회계연도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할 거로 보 고 있다.

스타벅스는 비대면과 모바일 주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호하는 고객의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주문을 기반으로 한 새 로운 형식의 '픽업' 스토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 다. 스타벅스는 교외 길가에서의 픽업, 드라이브 스루, 털 밀집된 교외 시장의 엘리베이터 없는 카 운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